

팬데믹 시대에 변화되는 교육 모습

1. 온라인 수업 (힘들다 vs 새로운 기회)

1-1. 디지털화되는 부분을 못 따라가면서 기존에 있던 역량을 풀어낼 수 없어 힘들.

1-3. 저학년인 경우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

2. 코로나로 드러난 한국 교육의 문제

2-1. 누가 먼저 학교에 갈 것인가

2-1-1. 한국의 경우 입시 중심 사회 때문에 고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를 시킨 반면 프랑스는 초등학교 1학년, 또는 의료진 자녀, 맞벌이 자녀들과 같이 돌봄이 당장 필요한 학생들을 우선 순위로 함. (사회의 깊은 배려)

2-2. 무엇을 배울 것인가

2-2-1. 지금 팬데믹 시대이고 대혼란이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그와 관련된 것이 정작 아무것도 없거나 연관성이 전혀 없는 내용만으로 진도 빼는 것에 급급하고 있다. (정해진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는 교사들의 고충은 이해되지만 기초적인 방역수칙만 말할 뿐이지 팬데믹이 왜 왔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것인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음.)

--> 이제 교육의 방식과 내용에 대해 고민과 진정성있는 대책을 내놓을 때이다.

3. 팬데믹 시대, 교육은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

3-1. 왜 학교를 가야하는가

침팬지 vs 아이들 (사탕 꺼내기 승부)

- 투명하지 않은 상자에서 둘 다 비슷하게 모방함.

- 투명한 상자에서 침팬지는 바로 보이는 사탕을 꺼내는 반면 아이들은 그대로 모방해서 삽질(?)을 함.

- 그대로 모방이 핵심 -> 뉴턴 어찌고 거인의 어깨 드립, 학교의 기원은 집단학습

- 배워서 남 주자 -> 왜 유테인들 중에 뛰어난 사람 많음? -> 유테인의 하브루타 학습법

- 우리나라는 조용한 도서관 vs 유테인들은 엄청 시끄럽게 토론하고 함.

- 사이코패스와 놀이의 상관관계 (사이코패스들의 공통분모에서 아동시기에 놀이가 없다는 점이 있음)

3-2.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팬데믹이 왜 왔고, 이것이 우리의 역사에 어떠한 변곡점이 오는가 이런것들을 가르쳐야 함.

실생활에 대한 것을 융합적으로 가르쳐야 함.

3-3.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온라인 수업의 한계에 대한 도전(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도전)

-> 다수의 온라인 수업들은 완수율이 10% 미만으로 저조

-> 콜드콜(수업중에 교수가 학생들에게 기습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

-> 이것을 팝업 퀴즈 형태로 극복함

-> 줌을 하면 왜 더 피곤함 (비언어적 소통의 중요성)

100% 비대면 커리큘럼(전세계가 캠퍼스, 미네르바 스쿨)

모든 것이 캠퍼스의 개념으로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현지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며 수업은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형식. 예를 들어 런던에는 런던만의 문제를 가지는데 이것들을 같이 해결하고 공부함.

4. 40+ 교육은 생존이다 -> 학생에 대한 새로운정의: 학습, 노동, 휴식을 수시로 반복하는 다 단계 인생 시대